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갔지…온라인에 밀려 줄폐업

광주 2022년 기준 28곳…코로나 전 2019년 36곳 대비 8곳 줄어

학생 수 급감·온라인 대비 가격 경쟁력 ↓ 학교 자체 보급 등 영향

7일 오전 8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천초등학교 인근의 한 문구점 앞. 새학기가 시작한 지 나흘 밖에 되지 않은 터라 등교 전 준비물 구매로 붐빌 것으로 예상됐던 문구점 앞은 한산하기만 했다.

이 학교 앞 문구점 운영자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텅 빈 가게를 지키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곳에서 25년 가량 문구점을 운영해온 박모(68)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구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1개교 당 최소 3곳의 문구점은 있을 만큼 번창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업종을 변경하거나 문을 닫은지 오래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가 경영난의 직격탄으로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이어 "아이들이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문구의 온라인 판매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린다"며 "누가 비싼 돈 주고 물건을 구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학교 앞 문구점이 사라지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등하교 시간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준비물을 구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 역할도 했던 문구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 문구점은 지난 2022년 기준 28곳으로,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36곳 대비 8곳(22%)이 줄었다.

동네 문구점 감소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이 실시한 전국문구점 실태조사 결과, 올 1월 기준 전국 문구점은 약 7800곳으로, 지난 2019년 9500여곳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영세한 동네 문구점 뿐만 아니라, 중·대형 종합문구상사도 포함됐지만, 전반적인 감소세는 뚜렷하다.

문구점 감소의 원인은 명확하다.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유통단계를 축소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문구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출현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도 그 이유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입을 모아 ▲학생 수 급감 ▲온라인 판매 대비 가격 경쟁력 저하 ▲학교 자체 문구 보급 등 때문에 동네 문구점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얘기처럼 합계출산율은 매년 발표 때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초등학교 학령인구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99년 광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12만1810명이었으나 매년 감소를 거듭하며 지난해 8만173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비교하면 33%(4만80명) 감소한 수치다.

광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문구점 상인들은 대부분 업종을 바꾸거나 문구점을 내놓은 상황이다"며 "지난 2018년까지도 문구점 업주끼리 연락하던 모임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2명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사가 안되니 교육청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 문구점에 1~3학년 준비물을 받아 쓴 뒤 예산으로 결제하는 등 방안을 내놨지만, 이로 인해 선택되지 못한 문구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7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천문구 앞에서 부녀가 학교 준비물 목록을 확인하고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민주·국힘 시·도당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광주시·전남도당을 찾아 '제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

임경준 회장 등 지역본부 회원 및 관계자들은 이날 각 정당을 찾아 ▲혁신 ▲균형 ▲공정·상생 ▲활로 ▲민생·협업 등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정책과제 16개가 포함된, 5대 분야 290개 중소기업정책과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협업사업 지원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 법제화 ▲노동개혁 ▲기업승계 및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생산성 향상 기반 강화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반드시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협업사업 지원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 법제화 등이 각 시도당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정기총회·금요조찬포럼

허태균 교수 '리더의 마음'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사진)는 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는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임원 선임 보고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와 함께 허태균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을 만든 리더의 마음'을 주제로 164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

강사로 나선 허태균 심리학 박사는 TVN '어쩌다어른', '유퀴즈온더블록'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심리학을 매개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경총금요조찬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매주 금요일 개최되고 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자세한 문의는 062-654-3425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해 광주·전남 간접수출 16.7조원…자동차부품·화학제품 최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간접진출 필요

지난해 광주·전남 간접수출이 16.7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 7.1조원, 전남 9.7조원 등 간접수출액 16.7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수출은 제조업체가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수출을 하거나,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에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광주·전남 간접수출은 자동차 부품과 석유화학공업제품 등 대기업 협력 업종 위주로 활발히 이뤄졌다. 광주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존재해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의 간접수출 비중이 높았다. 자동차부품 수출 비중이 56.1로 가장 높았는데 세부품목으로는 차량용 의자, 의자부분품, 승용차용 타이어 등의 간접수출이 활발했다.

전남은 석유화학 산업단지 효과로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출이 대부분이었다. 화학공업제품과 광산물 수출 비중이 각각 60.1%, 24.1%로 나프타, 텔레프탈산, 파라크실렌, 벤젠 등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간접수출이 주를 이뤘다.

광주·전남 간접수출은 증가세에 있긴 하지만 전국 대비 간접수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간접수출은 직접 수출의 37.7% 수준인데 반해, 광주·전남은 20.7%였다. 특히 전남의 경우 16.3%에 불과했다.

무역협회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간접수출 기회 자체가 부족하거나 간접수출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국내 전문무역상사 500개 중 광주·전남권에 소재한 기업은 13개에 불과하고, 광주·전남권 업체의 경우 전문무역상사와의 접점이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 간접 수출 실적 인정제도 자체를 몰라,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간접 수출 실적 인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고도 언급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 전문무역상사 상담회를 개최한다. 간접수출은 직접수출보다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동원 본부장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은 대체로 기업들의 직접수출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회 주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기자 mskim@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전남미래교육재단에 50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헌)는 7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미래교육재단에 국제 교류 지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달식은 오는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전남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서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정재헌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전남 학생들의 국제교류 및 소중한 꿈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재헌 본부장은 "이번 기부금 전달을 통해 전남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전남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센터 함평 엑스포 공원에 '수돗물 사랑방' 개소

수돗물 체험·정보 공유 소통 공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함평수도센터는 지난 5일 함평 엑스포공원에 '수돗물 사랑방'을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수돗물 사랑방은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마련한 사업이다.

사랑방 내부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음수대, 탈(脫)플라스틱 운동의 일환인 텀블러 세척기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수돗물 음용 공간과 수돗물 생산·공급·요금정보 및 지역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개소 행사에는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을 비롯해 함평군수, 함평군 관광정책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전남지역 최초의 수돗물 사랑방 개소를 축하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함평군으로부터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양질의 수돗물 공급하고 있으며, 함평군민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함평수도센터장은 "수돗물 사랑방이 함평군민에게 휴식과 함께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 맞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상의 5월18일 '경영정보시각화능력시험'

광주상공회의소가 오는 5월18일 제 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시험'을 시행한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시험은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단일 등급이며, 필기(2년간 유효) 합격 후 실기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는 ▲경영정보 일반 ▲데이터 해석 및 활용 ▲경영정보시각화 디자인 등 3개 과목을 각 20문항씩 출제하며, 시험시간은 1시간이다.

실기는 컴퓨터를 이용해 파워BI(Power BI), 태블로(Tableau) 프로그램으로 경영정보시각화 실무 과목을 작업한다.

올해 시험 일정은 필기 2회(5·11월), 실기 1회(9월)이며 별다른 응시 자격은 없다.

광주상의 관계자는"현재 국내 유수의 기업 및 다양한 산업에서 시각화툴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첫 시행되는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 등에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검정사업팀(062-350-58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47.62(+6.13)
↓	코스닥	863.37(-7.30)
↑	금리(국고채 3년)	3.330(+0.005)
↓	환율(USD)	1330.90(-3.60)